

강동구, 암사동 해설사 통해 유적 가치 알린다

등록 2016.01.06 15:05:03 | 수정 2016.12.28 16:25:33



【서울=뉴스시스】임재희 기자 = 서울 강동구(구청장 이해식)는 암사동 유적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문화유산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암사동 유적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로 1시간가량 해설을 들을 수 있다.

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을 거친 전문해설사들은 다년간 해설 활동 경험을 쌓았다. 이들은 단순히 유적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적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도 맡는다.

해설사는 유적 정문에서 출발해 실제 발굴지점에 복원된 움집으로 이동하며 유적의 연역과 발굴 이야기를 들려준다. 움집 안에서는 6000년 전 한강변에 살던 신석기인들의 생활방식을 설명한다.

전시관에서는 빗살무늬토기 등 암사동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볼 수 있다.

강동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관람객 1만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. 학기 시작 전 아이들에게는 생생한 학습의 현장이다.

강동구는 암사동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세계유산 시민강좌, 학교연계 탐방 교육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.

자세한 내용은 암사동 유적 홈페이지(sunsa.gangdong.go.kr)를 참고하면 된다.

limj@newsis.com